

새바람 KIA “초반 기선을 잡아라”

프로야구 주간 전망대

홈 롯데전·잠실 두산전 ‘상위권 도약 디딤돌’ 막강화력·탄탄한 마운드 앞세워 총력전 각오

개막전을 승리로 장식한 KIA 타이거즈가 롯데와 두산을 상대로 본격적인 순위 레이스에 돌입한다.

투타 안정된 전력으로 개막전에서 키움을 찍었던 KIA는 26일 롯데를 안방으로 불러들여 기세를 이어간다는 각오다.

우천으로 1경기 밖에 치르지 못한 KIA는 주중 6연전에 따라 시즌 초반 행보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초반 성적이 좋지 않다면 자칫 부상으로 빠진 나성범의 공백에 대한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KIA가 올 시즌 상위권 도약을 위해선 롯데와의 첫 3연전이 매우 중요하다.

개막전 장단 13안타를 터뜨린 KIA는 토종 에이스 양현종을 비롯해 새 외국인 투수 네일, 3년 연속 10승을 노리는 이의리를 선발로 내세워 상승세를 이어간다는 계산이다.

시범경기와 개막전 경기에서 보여줬듯 KIA는 선발진이 2-3점으로 막아주면 상·하위 가리지 않고 불을 뿜는 타선이 뒤를 받쳐줄 전망이다.

또, 올해 한층 더 두터워진 불펜진도 KIA의 강점이다.

지난해 KIA의 롯데전 상대 전적은 8승 8패로 호각세다. 롯데는 개막 2경기서 SSG에게 모두 패해 KIA전 승리를 통해 분위기 반전을 노리고

있다.

특히 KIA는 롯데의 새 외국인 타자 빅터 레이에스를 경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개막전 5타수 2안타를 기록한 데 이어 다음날 경기에서도 9회말 극적인 동점 투런 홈런을 터뜨리는 등 활약이 꽤 인상적이다.

롯데의 첫 선발투수는 지난해 KIA를 상대로 1경기 1승(7이닝 1실점·비자책점)을 기록한 반즈가 예고됐다.

롯데전에 이어 두산과의 주말 원정 3연전도 KIA에게는 매우 중요하다.

KIA는 지난해 두산과의 상대 전적에서 4승 12패로 압도적인 열세를 보였다. 정규리그 순위는 두산이 5위, KIA가 6위였다.

KIA가 가을 야구에 실패했던 주요 요인이 여기에 있다.

시즌 막판에도 5연패를 당했다. 올 시즌 개막전까지 더하면 7연패다.

이번 두산전에서 KIA는 연패를 끊고 동시에 시즌 초반부터 기선 제압을 할 필요가 있다.

KIA의 선발 로테이션상 윤희철과 크로우, 양현종이 두산 타선을 상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투타 조화를 보이며 NC와의 개막 2연전에서 1승 1패를 거둔 두산은 2명의 외인 원투펀치가 부상으로



지난 23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키움과의 개막전에서 팀이 7:4로 앞선 9회초 마운드에 올라 승리를 지켜낸 정해영이 한승택과 승리의 하이파이브를 나누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KIA전 출전여부가 불투명하다.

23일 개막전 선발 투수였던 라울 알칸타라는 허벅지 통증으로 조기에 강판됐다. 다음 날 경기에도 등판한 선발 브랜든도 왼쪽 등 통증을 호소해 교체됐다. 모두 부상 정도가 크지 않다고 하지만 만일 두산 전력에 누수가 생긴다면 KIA에게는 호재다.

KIA가 이번 주 롯데-두산 6연전에서 최소한 워닝시리즈를 이어간다면 4월을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다.

올 시즌 144경기 대장정의 맞을 올린 KIA가 개막전 기세를 어떻게 이어갈지 팬들의 관심과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주홍철 기자

KIA, 26-28일 홈 롯데 3연전

‘찐팬’ 릴레이 승리기원 시구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26-28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 열리는 롯데 자이언츠와의 경기에서 타이거즈 ‘찐팬’을 연속 초청해 승리기원 시구 이벤트를 개최한다.

26일에는 보이그룹 CIX의 멤버 BX(사진)가 시구자로 초대된다. BX는 SNS에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 직관을 인증할 정도로 팬심이 드러난 타이거즈 찐팬이다.

BX는 “온 가족이 3대째 응원중인 KIA 타이거즈의 시구를 하게 돼 큰 영광이다. 이날 경기에서 꼭 승리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BX는 이날 경기의 이닝 교대 이벤트를 팬들과 함께 참여해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27일과 28일 경기에는 SNS 팬 참여 이벤트인 ‘타이거즈 페스타 주인공을 찾습니다’에 선정된 타이거즈 팬들이 승리기원 시구를 한다.



이거즈 팬들이 승리기원 시구를 한다.

27일에는 2017년 한국시리즈 우승의 순간에 있었던 최지안 어린이와 이정화씨 모자가 각각 시구와 시타를 맡아 승리의 기운을 불어 넣어줄 예정이다.

28일 경기의 시구는 V12와 관련된 이름을 가진 찐팬 사연 공모에서 선정된 원두술씨가 시구를 맡는다.

원두술씨는 “제 이름처럼 타이거즈가 올해 꼭 열두번 째 한국시리즈 우승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주홍철 기자

2024 KBO 퓨처스리그 오늘 개막

KBO 유튜브 채널, 스포츠 통해약 120경기 생중계 예정



2024 미디어 KBO 퓨처스리그가 26일 이천, 서산, 함평, 문경, 상동 등 5개 구장에서 일제히 개막해 총 650경기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2024 미디어 KBO 퓨처스리그는 미래를 준비하는 유망주 선수들을 미리 만나볼 수 있는 무대다.

KBO는 공식 유튜브 채널 뿐만 아니라 LG유플러스의 스포츠 커뮤니티 플랫폼인 스포티를 통해서도 올 시즌 퓨처스리그 약 120경기를 생중계 편성해

팬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26일 개막전에는 임용수 캐스터, 박윤 해설위원의 진행으로, 27일에는 한명재 캐스터, 박윤 해설위원의 진행으로 두산과 LG 간의 북부리그 경기(이천)를 생중계 할 예정이다.

이후 퓨처스리그 중계 편성 일정은 매주 KBO 공식 채널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한편, KBO 퓨처스리그 중계방송 제작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후원으로 진행된다.

／주홍철 기자

“홈에서 골욕...원정서 되겠다”

황선홍호 오늘 태극전 “모든 것을 쏟아내겠다”



24일 태극방콕 월드컵 풋볼클럽에서 태극과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C조 4차전 경기를 앞둔 한국 축구대표팀이 러닝으로 몸을 풀고 있다. 26일 오후 6시30분 태극과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4차전을 치르는 대표팀은 지난 21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치러진 태극과의 3차전 홈 경기에서 손흥민의 선제골을 지켜내지 못하고 1대1로 비긴 터라 ‘리턴 매치’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각오다. 대표팀은 이번 4차전 원정에서 승리하면 사실상 최종 예선 진출의 ‘9부 능선’을 넘는다. /연합뉴스



여자프로배구 AI페퍼스 신임 감독으로 선임된 장소연 해설위원 (AI페퍼스 제공)

AI페퍼스, 장소연 해설위원 사령탑 선임

창단 후 3시즌 연속 최하위에 머물렀던 페퍼저축은행 AI 페퍼스가 신임 사령탑을 선임하며 새롭게 출발한다.

AI 페퍼스는 25일 “신임감독으로 장소연 해설위원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장소연 감독은 현역 시절 미들 블로커 포지션의 대한민국 여자 배구의 레전드로, 1993년부터 2016년까지 배구선수로 활동하면서 대부분의 기간 동안 여자배구 국가대표팀 선수로 활약했다. 올림픽과 세계선수권 등의 메이저 대회를 비롯한 각종 국제 대회에 참가해 괄목할 만한 성적을 거두며 한국 여자 배구의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국내 리그에서는 1992년 실업팀을 시작으로 2016년까지 프로리그 생활을 했다. 리그 우승 경험과 베스트 미들 블로커 수상, 리그 MVP, 블로킹상, 공격상 등 화려한 개인 수상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마지막 소속팀인 도로공사에서는 플레이 코치로 활약했다.

2016년 은퇴 후 현재까지 SBS스포츠에서 배구해설위원으로 8시즌간 활동 중이다.

김동연 AI페퍼스 단장은 “장 감독은 화려한 경력의 선수 생활과 다년간의 여자부 리그 해설위원으로서의 경험을 갖추고 있어 여자배구단과 선수

들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며 “강력한 리더십과 운영 능력을 바탕으로 구단이 처한 상황을 돌파하고, 선수들을 하나로 묶어 팀으로 만들어갈 소통 능력이 뛰어난 적임자라는 판단 하에 심사 속고 끝에 감독으로 선임했다”고 말했다.

장소연 감독은 “AI페퍼스의 신임감독으로 새로운 지도자의 길을 가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기본에 충실한 배구를 통해 AI페퍼스 변화와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 팬들의 기대에 부응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박희중 기자



최경주가 25일 열린 PGA 투어 챔피언스 호그 클래식 최종 라운드 15번 홀에서 티샷을 한 후 궤적을 바라보고 있다. /AFP=연합뉴스

‘탱크’ 최경주, 시즌 첫 톱10

PGA 챔피언스 호그 클래식 공동 5위

‘탱크’ 최경주가 올해 처음 10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최경주는 2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뉴포트비치의 뉴포트비치 컨트리클럽(파71)에서 열린 시니어투어인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챔피언스 호그 클래식(총상금 200만 달러) 최종 라운드에서 3언더파(68타)를 쳐 공동 5위(10언더파 203타)를 차지했다.

최경주가 PGA 투어 챔피언스 대회에서 톱10에 진입한 건 올해 처음이다. 최경주는 이 대회에 앞서 4대 대회에 출전해 모두 20위 이내에 들었지만, 정작 10위 이내에는 오르지 못했다. 최고 성적은 트로피 하산 2세 대회 공동 13

위였다.

이날 최경주는 13번 홀까지 4타를 줄여 선두 파드리크 해링턴(아일랜드)에 1타차까지 따라붙었지만 17번 홀(파3) 보기로 우승 경쟁에서 물러났다.

해링턴은 16번 홀까지 버디 4개, 더블보기 2개로 제자리를 건다가 17, 18번 홀 연속 버디를 잡아내 우승했다. 최종 합계 14언더파 199타를 적어낸 해링턴은 통차이 자이디(태국)를 1타 차로 제치고 이번 시즌 첫 우승이자 PGA 투어 챔피언스 통산 7번째 우승을 거뒀다.

양용은은 2타를 잃고 공동 11위(6언더파 207타)로 대회를 마쳤다. /연합뉴스